

#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우인수\*\*

## 차례

- I. 머리말
- II. 도산서원 원장의 직무와 위상
- III. 17세기 원장직의 안정적 운영
- IV. 18세기 원장 구성의 지역적 확대
- V. 19세기 원장 선임의 고층과 변화
- VI.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후기 약 300년 동안의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살핀 것이다. 도산서원 원장직은 서원을 대표하면서 서원과 관련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였다. 서원을 대표하는 존재이기에 학식과 덕망을 갖출 것이 요구되었고, 일단 선출된 이후에는 그 권위를 인정받았다. 도산서원의 원임안과 각종 고문서를 주 자료로 이용하고 그 외 사서와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선후기 300년을 100년 단위로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특징을 분석할 수 있었다. 총 463명의 원장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시기별로 밝힐 수 있었다.

먼저 원장의 수와 재임 기간의 변화를 살필 수 있었다. 18세기에는 원장의 수가 급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17세기와 비교하면 약 3배 이상 증가한 규

\* 본 연구는 2012년도 (재)한국국학진흥원 국학자료 심층연구 사업의 자료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모였다. 19세기에든 그러한 상황은 유지 확대되었다. 원장의 수에 반비례하여 재임 기간은 짧아졌다. 17세기에 2년 남짓이었던 원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18세기와 19세기에는 각각 5.4개월과 5.3개월로 짧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원장 수를 늘려서 우호세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다음은 원장의 거주지 분포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세기의 원장은 거의 모두 예안 지역 거주자였는데 18세기에는 그 비율이 56.6%로 급격히 줄었다가 19세기에는 68%로 다시 늘어난 추세를 보였다. 18세기에는 안동을 위시한 경상도 북부 여러 지역 출신을 원장에 임명하였기 때문이다. 19세기에 예안 출신이 다시 약간 증가한 것은 예안의 독점구조가 더 강화된 것이라기보다 예안의 진성이씨 집안에서 말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었다.

원장의 성씨별 분포 비교도 의미 있는 변화의 양상을 설명해줄 수 있는 주요한 잣대였다. 17세기 원장은 예안현의 유력 성씨인 광산김씨, 진성이씨, 봉화금씨 순으로 많았으며, 세 성씨의 합이 전체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었다. 18세기 원장 구성은 진성이씨와 광산김씨의 순으로 비중이 바뀌었으며, 세 성씨의 합은 약 54%에 그쳐서 세 성씨의 독점 구조가 상당히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9세기의 경우는 진성이씨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져서 약 64%를 차지하였다. 진성이씨가 감당할 수밖에 없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장 자리의 일부를 예안현의 수령이 감당한 것도 19세기에 나타난 특징이었다.

도산서원 원장에 취임할 당시의 경력에 대한 분석에서도 변화의 양상을 살필 수 있었다. 17세기에는 전직 관료 출신 비중이 17세기에는 약 40%를 차지하였고, 18세기에는 약 62%로 크게 늘었다가 19세기에는 약 32%로 급격히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유학의 비중은 세 시기에 각각 34%, 27%, 58%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변 지역의 명망가를 원장으로 영입하여 서원을 유지하려는 18세기의 모습과 원장 선임에 어려움이 있었던 19세기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도산서원은 시대적 변화에 비교적 잘 대응하면서 운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대응 과정의 어려움을 원장 구성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의 결과 나타난 여러 특징들은 바로 도산서원 역사의 생생한 모습인 것이다.

#### 주제어

도산서원, 원장, 상유사, 원장의 구성, 예안현, 진성이씨

## I. 머리말

조선시대의 서원은 유교 이념을 구현하고 보전하는 사립 교육기관이었다. 사표가 될 만한 선현을 사당에 모시고 기리면서 유생을 교육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초창기 서원이 보급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데는 퇴계 이황이 미친 영향이 지대하였다. 그는 초창기 전국에 건립된 서원 20여개 중 반 수 이상의 서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바 있었다.<sup>1)</sup>

도산서원은 바로 그 퇴계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 그를 주향으로 하여 창건된 서원이었다. 1574년에 창건한 이래 40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인 오늘에 이르기까지香火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도산서원은 창건 당시부터 퇴계를 모신 주서원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전국의 서원을 대표하였다. 그 지위는 조선조 말 흥선대원군에 의한 서원철폐령이 단행되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하면서 굳건하게 다져졌다.

이 긴 기간 동안 서원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책임진 이들이 원임이었다. 원장은 그 우두머리로서 서원을 대표하는 존재였다. 원임이나 원장과 관련하여서는 이수환과 윤희면에 의해 일정한 학문적 관심이 배풀어졌다.<sup>2)</sup> 이들 연구에 의해 원장을 비롯한 원임의 선출 과정이나 담당할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들은 상당부분 밝혀졌다.

하지만 원장을 포함한 원임의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다. 서원을 대표하던 원장의 실체에 대해서도 짐작은 하고 있지만 구

1) 정만조, 「조선서원의 성립 과정」, 『한국사론』8, 국사편찬위원회, 1980 ;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42쪽.

2)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 원임 연구」, 『역사교육』54, 1993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체적인 분석을 통해 밝혀진 바는 없다. 개별 서원을 대상으로 하여 원장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그 구성의 특징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원장의 성씨별 지역별 구성을 살피고, 또한 그 구성이 변화하는 모습을 추적하는 연구는 서원의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리라 믿는다.

본고는 도산서원을 대상으로 하여 원장의<sup>3)</sup> 구성을 집중 분석하고자 한다. 조선후기 300년 동안의 변화하는 모습에 특히 유념하고자 한다. 도산서원의 경우는 원임안이 전시기에 걸쳐 비교적 잘 남아있으며, 얼마간 결락된 시기의 것은 도산서원 소장의 각종 고문서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약 300년의 조선후기 기간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로 크게 시기를 구분한 것은 단순히 100년 단위로 구분한 것은 아니다. 원장의 인적 구성상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차이를 반영한 결과이며, 여기에 중앙정계의 동향, 남인의 처지, 원장의 성분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분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도산서원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그 연구의 결과는 다른 서원의 경우를 분석할 때 하나의 준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

3) 도산서원의 경우는 '上有司'가 서원을 대표하는 직임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고, 원장이라는 직임은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후대인 1870년 경의 도산서원 完議에는 원장이라고 명기되어 있기도 하였다. 즉 '재임이 원장에게 모든 것을 보고한 후 처리한다'는 문구가 있다. 이 경우는 상유사라는 표현 대신에 대부분 서원의 일반적인 명칭인 원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듯하다. 물론 그 이후에도 도산서원은 상유사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였다. 원장이라는 명칭이 도산서원 전 시기에 걸쳐 사용된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사용되지 않은 표현도 아니었다. 더구나 현재에는 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명칭에서 오는 혼동을 막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상유사라는 용어 대신 원장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 II. 도산서원 원장의 직무와 위상

서원 운영을 책임진 원임의 체계와 명칭은 서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영남지역의 일반적인 남인계 서원은 원장과 유사로 원임을 구성하였으며, 더러 규모가 큰 서원의 경우는 원장 - 상유사 - 하유사의 체제를 취한 곳도 있었다. 서인계 서원의 경우는 원장 - 장의 - 유사 체제로 원임을 구성하였으며, 경원장이라 하여 서울의 고위 벼슬아치를 원장으로 채택한 경우가 많았다.<sup>4)</sup>

도산서원의 경우는 상유사와 재유사로 나뉘어져 있었다. 상유사를 상임, 재유사를 재임이라 표현하기도 하였다. 상유사가 원장으로서 서원을 대표하는 존재였다. 비록 후대의 자료이지만 1916년(병진)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陶山書院 儀節草』에는 ‘上下有司’를 가리켜 ‘院長齋任’을 의미한다고 세주로 표기한 것으로 미루어 상유사를 원장으로, 하유사를 재유사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5)</sup>

도산서원에서는 별도로 원규를 만들지는 않고 퇴계가 풍기 군수 시절에 지은 이산서원 원규를 준용해서 사용한 듯하다. 퇴계가 생전에 직접 지은 것이니 이것보다 더 적절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한 듯하다. 이산서원 원규에는 원임에 대한 자격 규정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서원의 유사는 근처에 사는 청렴하고 재간 있는 품관 두 사람으로 정하고, 또 선비(儒士) 중에 사리를 알고 操行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추앙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골라서 상유사로 삼되 모두 2년마다 교체한다.<sup>6)</sup>

4)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104쪽, 118쪽.

5) 『陶山書院 儀節草』(병진 2월), 『傳掌』.

6) 『(국역)퇴계집』41, 잡저, 이산원규.

상유사는 유학에 종사하는 선비 중에서 뽑되, 사리를 잘 분별하고 행동이 의로워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자격의 내용이 어찌 보면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학교 기관의 우두머리를 정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기에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임기는 2년이였다.

그리고 명확하게 거리를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근처에 사는' 사람으로 원임을 선출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아마 서원에 대한 원활한 관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수서원의 원규에는 이 점을 좀 더 명확히 하여 '서원의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멀리 살게 되면 비록 지성이 있다하더라도 형세상 자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황폐하게 될 것이니, 모름지기 5리 이내에 사는 사람으로 삼는 것이 가하다.'라고 하여 5리로 규정하고 있다.<sup>7)</sup> 물론 이 규정이 엄격하게 계속 구속력을 가졌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을 선출하고자 하였던 의도는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은 도산서원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대로 적용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대개 예안현에 거주하는 인사를 원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서 이 규정은 그대로 계속 시행될 수는 없었고,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도산서원 원임의 선출 과정과 관련한 초기의 구체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짐작컨대 초창기에는 '鄕' 즉 예안현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선출하다가 나중에는 '道' 즉 경상도 내의 거주자로 확대되었다고 생각한다. 봄 가을 제향 때에 유림들이 모이는 때를 이용하여 제향을 마친 뒤 회의를 열어서 선출하는 것이 자연스런 관례였다. 이 때 후보를 천거받아 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람을 원장으로 선출하였다.

7)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192쪽 : 『대동야승』21, 「해동잡록」3, 주세붕.

앞서 소개한 『도산서원 의절초』에는 원임 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이 자료가 비록 1916년의 것으로 짐작은 되지만 그 전부터 행해오던 관행을 수렴하여 정하였다고 본다면 선출의 정신만큼은 이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에 의거하면 公事員이라고 하여 임기 3년의 10인이 있어서 이들이 상하유사의 추천과 선출 및 원생 추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이 도내에서 학문과 덕망을 갖춘 사람 3명을 천거하여 그 이름 밑에 권점을 하여 다수의 권점을 획득한 이를 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이 때 선택되지 못한 나머지 두명은 다음 선출 때 자동으로 포함되고, 나머지 한 사람을 새롭게 천거하여 3명으로 만든 후 같은 방식으로 권점하여 새로운 원장을 뽑는 식이었다. 이때는 원장의 임기가 1期라 하여 正講, 春享, 秋享으로 일 년의 큰제사 3번에 맞추어 3기로 나누어 놓았다. 물론 유임할 수 있었지만 산술적으로 본다면 일 년에 3명의 원장이 배출되는 셈이었다.

어쨌든 초창기부터 이러한 제도가 생겨난 것은 아니고 후대로 가면서 점차 정착되어가다가 일정 시점에 이를 문서화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 정신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한 방식으로 뽑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권점에 의해 선출하는 방식은 중앙의 홍문록을 위시하여 조선조에 널리 퍼져있던 보편적인 선출 방식으로서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던 것이었다. 그 정신이 도산서원의 원장 선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도산서원 의절초』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실제에서도 적용되었는가는 다른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한 문제이다.

상유사는 도산서원을 대표하는 어른이었다. 그는 서원의 자잘한 실무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서원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자문에 응하여 적절한 판단을 해주어야 하였다. 유생들은 원장을 존경하여야 하며, 원장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처신하여야 하였다. 한강 정구

는 도동서원 원규에서 이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해 두었다.

원장은 한 서원의 어른이 되어 서원 유생의 상호간 유대를 주관하고 앞길을 인도함으로써 많은 벗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서원에 들어온 선비는 마땅히 그를 존경하고 모범으로 삼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원장이 된 자도 스스로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가다듬어 욕을 자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원장이 혹시 과오가 있을 때는 같은 또래의 동료들이 남몰래 서로 충고함으로써 빨리 그 과오를 시정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얼굴을 대놓고 책망하거나 損徒하는 벌은 감히 원장에게 가하지 않는다. 혹시 잘못을 범한 정도가 커서 더 이상 원장의 직임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경우에, 원장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sup>8)</sup>

도산서원의 경우도 당연히 그러하였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원장은 존경의 대상이자 상징성이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충분히 인정해주었으며, 그 대신에 원장의 명예에 손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스스로 물러나는 양심과 염치가 요구되는 자리였던 것이다.

실제 원장이 담당한 역할이나 업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약간씩은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서원이 예안현 내부의 사족들로 운영되던 시기와 주변 군현의 사족들까지로 확대되어 운영되던 시기의 원장의 역할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교육기능이 강하던 시기의 원장과 선현봉사기능에 치중하던 시기의 원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달랐을 것이다. 다만 실제 수행하였고 또 요구되었던 원장의 업무를 일반적인 견지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8) 『寒岡續集』4, 「잡저」, 院規(爲道東作).

첫째, 서원에는 유생들이 머물면서 학업을 닦는 공간이었다. 사람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도 잘 조성하여야 하였을 것이고, 더러 젊은 유생들의 행실도 규찰하여야 하였다. 이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유사가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원장에게 있었다. 퇴계의 이산서원 원규에는 “제생과 유사는 힘써 예모로써 서로 대하고, 공경과 믿음으로 서로 대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었다.<sup>9)</sup>

둘째, 서원에는 서원에 딸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실무를 맡은 유사를 위시하여 잡일을 하는 원속 즉 하인들이 있었다. 이들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도 원장이 최종적인 책임자였다. 퇴계의 이산서원 원규에는 “유사와 제생들은 항상 하인을 애호하여 원의 일과 재의 일 이외에는 누구나 사사로이 부리지 못하도록 하며, 개인적인 노여움으로 별주지 못한다.”라고 규정해두었다.<sup>10)</sup> 또한 “원속들에게 죄가 있는 경우는 온전히 용서할 수 없으니, 작은 죄는 유사가, 큰 죄는 상유사와 상의하여 형벌을 논한다.”라고 하여 상유사와 유사의 역할 분담을 규정해두었다. 서원에 소속되어 각종 잡일에 종사하는 하인들을 단속하고, 그들이 부당하게 부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원장이 관심을 베풀어야 하는 일이었다.

셋째, 서원은 선현을 모신 공간이었다. 따라서 제향시에 대표로 참가하는 것이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역할이었다. 제향의 준비 단계부터 원활하게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야 하였다. 제향시에는 초헌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강 정구는 도동서원의 원규에서 제향과 관련한 원장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9) 『(국역)퇴계집』41, 잡저, 이산원규.

10) 『(국역)퇴계집』41, 잡저, 이산원규.

원장은 미리 제찬을 갖추어 두며 재계를 엄숙하고 정갈히 하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낸다. 만일 불참자가 있을 때는 문서에 그 성명을 쓰되 有故와 無故의 사정을 아울러 기록하여 나중에 모였을 때 면전에서 책망한다. 일곱 번까지 불참한 자는 명단에서 축출하되 아무런 이유 없이 불참한 자는 다섯 번째에 축출한다.<sup>11)</sup>

도산서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어서 도산서원의 경우를 살피는 데 참고가 된다. 제사 준비를 총괄할 뿐 아니라 당일의 향사를 총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불참자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통해 서원의 향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살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원장의 책무에 속하는 일이었다.

넷째, 도산서원의 각종 재산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도 궁극적으로는 원장에게 있었다. 19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도산서원의 완의에 의하면 서원의 재산 관리를 엄정하게 감독하는 책임을 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서원 소유의 전토에서 세를 거둘 때에도 정확하게 잘 거두어졌는지를 원장이 최종적으로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sup>12)</sup> 서원 재정의 악화로 인해 몇 년 내에 향사를 지내기 어려울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재산 관리의 책임이 이 때 비로소 원장의 임무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내려오던 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1870년에 작성된 도산서원 완의에 의하면 서원의 도서나 물건, 토지, 노비 등 재산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원장에게 있음을 강조해두고 있다.<sup>13)</sup> 이 완의는 수령이 서원 원장을

11) 『寒岡續集』4, 「잡지」, 院規(爲道東作).

12) 「完議」(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정묘년(1807년 또는 1867년 추정). “一 本院田土春秋收稅 一一收刷畢捧後 首任躬檢斗量入庫事”

13) 「完議」(한국국학진흥원 소장), 경오년(1870년 추정). “今奉朝令 院長之任 本官主管 毋使本孫干涉事務 則凡屬院務 有不可不講定於曾經院長及齋任後行之故 齊會爛議 另定節

겸하게 한 조정의 명령에 대한 예안현감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전의 원장의 기본 업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원장의 직임은 서원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였다. 그리하여 20세기에 만들어진 「儀節草」에는 상유사의 업무를 '統體院事'라 하여 서원의 모든 일을 거느려서 관할하는 역할로 규정하였다.<sup>14)</sup>

### Ⅲ. 17세기 원장직의 안정적 운영

도산서원은 퇴계의 장례가 완전히 끝난 후인 1572에 열린 도산서당 문도들의 모임에서 건립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구체화되었다. 준비 과정을 거쳐 그 2년 뒤인 1574년에 본격적으로 건물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듬해인 1575년에는 주요 건물들이 규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국가로부터 도산서원의 사액도 받게 되었다. 그리고 1576년에 사당인 상덕사에 퇴계의 위패를 봉안하고 향사를 지내기 시작하였다.<sup>15)</sup>

도산서원 창건 즈음의 원장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1573년 경의 趙穆, 1574년 경의 琴應夾, 1576년 경의 裴三益 뿐이다. 모두 예안지역에 거주하던 인물들이다. 주지하듯이 월천 조목은 퇴계의 수제자 중의 한 명으로 이후 도산서원에 중향되는 인물이다. 그 이후 20여년 간의 원장의 구성 상황은 남아 있는 자료나 기록의 한계로 인해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1596년 정부터는 중간 중간 약간의 공백은 있지만 연속적인 파악

目 開錄揭壁 勿替遵行事”

14) 『陶山書院 儀節草』(병진 2월), 「有司」.

15) 정만조 외,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45쪽.

이 가능하다. 이에 원장 구성 분석의 기점으로 삼았다. 구성상에 변화가 나타나는 하나의 구분선으로 상정될 수 있는 시기로 1694년 갑술환국을 들 수 있다. 숙종대 갑술환국을 계기로 남인은 더 이상 중앙정계의 집권 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앙정계의 판도 변화가 영남 남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도산서원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마침 1695년까지 원장이 파악되다가 다시 10여년 간 파악되지 않는 공백이 있다. 이에 그 해를 분석의 종점으로 삼았다. 공교롭게도 17세기 와 거의 일치하게 되었다.

이 시기 도산서원의 원장의 구성을 알려주는 자료로는 먼저 도산서원 소장의 고문서 『前任案』이 있다.<sup>16)</sup> 『前任案』에는 1576년부터 1975년까지의 원임이 정리 기재되어 있다. '전임안'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후대에 재정리하여 책자 형태로 만든 다음 그 이후부터는 계속 누적하여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1578년부터 1652년까지 약 74년간의 원임 명단이 누락되어 있다. 도산서원의 초창기 상당 기간의 원임 명단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다행히 이 누락된 기간은 도산서원의 다른 고문서인 『傳掌記』를 통하여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 『전장기』는 신규 원장이 교체되는 시점에 서원 소유의 물품을 정리하여 인수인계한 문서로서 그 말미에는 신규 원장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으로 완벽한 복원은 아니지만 분석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복원이 가능하였다.<sup>17)</sup>

16) 이 원임안은 1988년 퇴계학연구소에 의해 활자화되어 『陶山書院 前任案』(『퇴계학 연구』2,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88)으로 공개된 바 있다. 본고에서도 이를 이용하였다.

17) 이 누락된 시기의 원임 명단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박현순 HK교수가 전장기와 기타 일기류 자료를 활용하여 복원한 바 있다. 박교수는 엄청난 노력의 결과물인 이 결락된 시기를 포함한 원임 명단 파일을 흔쾌히 본 연구자에게 제공하여 주었

1596년-1695년 사이 100년간 총 38명의 원장이 확인된다. 그 명단을 연대순으로 정리하고 거주지역, 본관, 경력을 조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sup>18)</sup>

<표 1> 17세기 도산서원 원장의 연도별 명단

연도	이름	거주지	본관	경력
1596	琴應璫	예안	봉화김씨	前봉사 생원
	琴憬	예안	봉화김씨	생원
1598	金圻	예안	광산김씨	
1600	金圻	예안	광산김씨	
1602	金澤龍	예안	예안김씨	前전직 문과
1603	金圻	예안	광산김씨	
1604	金澤龍	예안	예안김씨	前전직 문과
1605	琴應璫	예안	봉화김씨	前현감 생원
1607	琴應璫	예안	봉화김씨	前현감 생원
1609	琴憬	예안	봉화김씨	前참봉 생원
1610	李有道	예안	진성이씨	
	金坪	예안	광산김씨	생원
1611	琴憬	예안	봉화김씨	前참봉 생원
1612	金澤龍	예안	예안김씨	前도사 문과
	琴憬	예안	봉화김씨	前참봉 생원
1614	金澤龍	예안	예안김씨	前도사 문과
1615	金澤龍	예안	예안김씨	前도사 문과

다. 박교수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린다. 단 분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 연구자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18) 원장 재임기간의 시점과 종점이 연도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해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경우 원장의 이름을 두 해에 모두 표시하지는 않았다. 표에 제시된 연도와 원장의 명단은 그 점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게 이해하면 좋겠다. 이하 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616	金坪	예안	광산김씨	생원
	李詠道	예안	진성이씨	前부사
	李義迪	예안	진성이씨	
1618	李詠道	예안	진성이씨	前부사
1619	金垓	예안	광산김씨	前주서 문과
1621	金澤龍	예안	예안김씨	前도사
1622	李詠道	예안	진성이씨	前부사
1623	琴憬	예안	봉화김씨	前봉사 생원
1624	琴憬	예안	봉화김씨	前봉사 생원
1625	李有道	예안	진성이씨	
1626	琴憬	예안	봉화김씨	前정랑 문과
	金光繼	예안	광산김씨	前교관
1627	琴愷	예안	봉화김씨	前목사 문과
1628	金確	예안	광산김씨	생원
1629	金確	예안	광산김씨	생원
1631	金光繼	예안	광산김씨	前교관
1632	金光繼	예안	광산김씨	前교관
1633	李詠道	예안	진성이씨	前부사
1634	琴愷	예안	봉화김씨	前목사 문과
	李詠道	예안	진성이씨	
1635	金光繼	예안	광산김씨	前교관
1637	金確	예안	광산김씨	생원
1638	洪有煥	외지 안동	남양홍씨	
1640	金光繼	예안	광산김씨	前교관
1641	金光繼	예안	광산김씨	前교관
1642	金光繼	예안	광산김씨	前교관
1643	金鳴遠	예안	안동김씨	前직강 문과
1644	金瑛	예안	순천김씨	생원
1645	金確	예안	광산김씨	생원
1647	金確	예안	광산김씨	생원

1648	金光岳	예안	광산김씨	
1649	金瓊	예안	순천김씨	생원
1650	金確	예안	광산김씨	생원
1652	金光遂	예안	광산김씨	
1653	金光遂	예안	광산김씨	
1654	李溟瀾	예안	진성이씨	前정자 문과
1655	李溟瀾	예안	진성이씨	前정자 문과
1656	李長亨	예안	진성이씨	생원
1658	金曠	예안	광산김씨	
1659	金曠	예안	광산김씨	
1660	李長亨	예안	진성이씨	생원
1661	李英哲	예안	진성이씨	
1662-63	金啓光	예안	안동김씨	學諭
1664	金光遂	예안	광산김씨	
1665	李溟瀾	예안	진성이씨	前현감
	琴好謙	예안	봉화금씨	
	金輝斗	예안	광산김씨	진사
1666	李誠哲	예안	진성이씨	前현감
1667	李英哲	예안	진성이씨	前교관
1669	李英哲	예안	진성이씨	前교관
1670	金輝世	예안	광산김씨	
	李長亨	예안	진성이씨	생원
1671	琴聖徽	예안	봉화금씨	진사
1672	琴聖徽	예안	봉화금씨	진사
1673	金璫	예안	광산김씨	前현감 문과
1674	金輝世	예안	광산김씨	
1675	琴聖徽	예안	봉화금씨	진사
1676	金輝世	예안	광산김씨	
1677	李英哲	예안	진성이씨	前교관
	琴聖徽	예안	봉화금씨	진사

1684	金玖一	-	-	
	李克哲	예안	진성이씨	前주부
	金玗	예안	광산김씨	
1685	李希哲	예안	진성이씨	前찰방
	成文夏	예안	창녕성씨	생원
	李克哲	예안	진성이씨	前주부
1686	金怡	예안	광산김씨	
1687	李希哲	예안	진성이씨	前찰방
1688	李克哲	예안	진성이씨	前주부
	李彬漢	예안	진성이씨	
1689-90	李希哲	예안	진성이씨	前찰방
1691	金玗	예안	광산김씨	
	金怡	예안	광산김씨	
1692	李希哲	예안	진성이씨	前찰방
	金燁	예안	광산김씨	진사
1693	金怡	예안	광산김씨	
1694	李杲	예안	진성이씨	前군수
	李克哲	예안	진성이씨	前찰방
	李杲	예안	진성이씨	前군수
1695	李杲	예안	진성이씨	前군수

100년 간 총 38명의 원장이 재직하였다고 가정하면 평균 재임기간은 31.6개월로 약 2년 8개월이 된다. 그런데 38명이 100년 간 재임한 원장의 전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평균 재임기간은 아니다. 실제 원장 수는 38명보다는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평균 재임기간은 더 짧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기간 동안의 원장을 더 이상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다행히 원장이 파악되지 않는 해는 파악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재임기간을 산출

할 수 있다. 원장이 파악되지 않는 연도는 1597, 1599, 1601, 1606, 1608, 1613, 1617, 1620, 1630, 1636, 1639, 1646, 1651, 1657, 1668, 1678-1683 등 총 21년이다. 100년에서 21년을 뺀 79년 동안 38명의 원장이 재직하였다고 가정한다면 평균 재임기간은 24.9개월로 약 2년 1개월이 된다.

이 산출 방식에는 약간의 문제는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중임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감안하여 계산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표에서 보듯이 특히 17세기에는 중임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이 시기의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원장이 파악되지 않는 연도에는 38명 외의 인물이 재직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일부 연도에는 앞 뒤 연도의 원장이 연임 또는 중임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21년을 대상 연도에서 기계적으로 제외하고 계산한 방식도 완전한 것은 아닌 것이다.

이상의 점을 고려할 때 17세기에는 도산서원 원장 한 사람 당 평균 재임기간이 2년 1개월 남짓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도 중임의 경우를 감안하지 못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한 회기의 임기는 이보다는 조금 더 짧았을 것이다. 원규에 규정된 원임의 임기가 2년임을 고려할 때 원임의 운영이 처음 만들어진 원규대로 거의 지켜졌음을 확인해 주는 데 의미가 있다. 대체로 안정적으로 순조롭게 운영되었다고 일단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당시 원장은 거의 모두 예안 지역 거주자였다. 확인되는 38명의 원장 중 미상 1명, 확실치 않은 1명을 제외한 36명이 예안 거주자들이다. 따라서 17세기는 예안 출신 원장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군현단위의 운영이 규정되어 있던 원규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원장에 임명된 자는 대부분 예안현의 유력 성씨인 광산김씨, 진성이씨, 봉화금씨였다. 광산김씨가 14명을 배출하여 전체의 36.8%를 차지하

여 가장 비중이 높았고, 진성이씨가 11명으로 28.9%, 봉화금씨가 6명으로 15.8%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세 성씨의 합이 31명으로 81.6%를 차지하였다. 그 외 안동김씨 2명, 예안김씨·순천김씨·창녕성씨·남양홍씨가 각각 1명이었다. 1명은 미상이다. 참고로 원장의 성씨별 명단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17세기 도산서원 원장의 성씨별 구성

성씨	인원	원장명
광산김씨	14명(36.8%)	金圻 金坪 金垓 金光繼 金確 金光岳 金光遂 金暉 金輝斗 金輝世 金聰 金玗 金怡 金輝
진성이씨	11명(28.9%)	李有道 李詠道 李義迪 李溟瀼 李長亨 李英哲 李誠哲 李克哲 李希哲 李彬漢 李杲
봉화금씨	6명(15.8%)	琴應璫 琴憬 琴櫟 琴愷 琴好謙 琴聖徽
기타	7명(18.4%)	안동김씨(金啓光 金鳴遠), 예안김씨(金澤龍), 순천김씨(金瓌), 창녕성씨(成文夏), 남양홍씨(洪有煥), 미상(金玖一)
합계		38명(99.9%)

위 38명 원장의 경력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당연히 도산서원 원장에 취임할 당시의 경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전직 관료 출신이 가장 많아 15명으로 39.5%를 차지하였다. 전직 목사로서 원장을 역임한 금개의 경우가 거의 유일하게 그나마 고위급에 속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당하관급 이하였다. 그 중 문과 출신은 7명이었다. 생원·진사 출신의 원장은 9명이었는데, 전직 관료 중에서도 생원·진사 출신이 있기 때문에 그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유학은 13명으로 34.2%를 차지하여 전체의 약 1/3 수준이었다.

#### IV. 18세기 원장 구성의 지역적 확대

현종 말년 예송에서의 승리로 인해 남인은 숙종 초년의 정국을 주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680년(숙종 6) 경신환국으로 인해 남인은 실각하게 되었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다시 집권하였으나 5년 뒤인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으로 다시 실각하게 되었다. 갑술환국 이후 남인은 더 이상 집권세력으로서 정국의 전면에 나서지 못하게 되었다.

갑술환국은 영남 남인사회에도 큰 타격을 가하였다. 특히 퇴계학동을 확립하고 영남 남인 사회의 결집을 주도하던 산림 이현일의 유배는 큰 충격이었다. 이현일의 신원이 조선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영남 남인을 바라보는 집권 노론세력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후 노론 집권세력은 남인의 본거지인 영남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음양으로 구사하였다. 영조 14년 서인의 중심인물인 김상헌의 서원을 안동에 건립함으로써 영남에서의 서인 세력 확장의 교두보로 삼으려 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sup>19)</sup> 결과적으로 서원 건립은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남인 사회 내부에 갈등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하였다.

도산서원으로서도 주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활로를 모색하여야 하였다. 당연히 원장 구성에도 영향을 미쳐 선임과 구성상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예안현 내에서 원장을 내던 것에서 탈피하여 주변 군현의 명망가를 원장으로 초빙하기 시작하였다. 도산서원에 우호적인 세력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원장의 명망에 기대어 외풍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의도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19) 정만조, 「영조 14년의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시비」, 『한국학연구』1, 1982.

무엇보다 도산서원의 원장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외지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은 영남지역에서 퇴계와 도산서원이 가지는 높은 위상과 상징성 때문이라고 하겠다. 도산서원은 이를 잘 활용하면서 시대적 변화에 대처한 셈이다.

그런 가운데 18세기 말 정조대에는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 남인 사회에 상당히 우호적인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다. 정조는 영남 지역을 자신이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의 기반으로 활용할 정치적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도산별과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조는 1792년(정조 16) 퇴계의 학덕과 유업을 기리기 위해 도산서원에서 특별한 과거시험을 치르게 함으로써 영남 사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하였다.<sup>20)</sup> 이로써 도산서원은 그 권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인정받게 되었다.

18세기 원장의 분석 대상 시기는 1706년에서 1800년까지 95년 간이다. 1696년부터 약 10년 간의 원장 명단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원장이 파악되기 시작한 1706년을 분석의 기점으로 삼았다. 특히 1707년 권두인을 필두로 하여 타지역에서 원장이 임명되기 시작하였다. 시기 구분의 종점은 1800년으로 잡았다. 앞 시기의 100년 정도와 맞추려는 의도와 18세기에 해당되는 시기를 확보하려는 작위적인 면이 작용한 느낌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기 이후인 19세기는 중앙정계에서는 세도정치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며, 향촌사회에서도 신구향 간의 갈등을 비롯한 향전이나 각종 시비들이 일어나서 사족지배체제가 대단히 흔들리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또한 서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가 단행되었던 시기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0) 『정조실록』34, 16년 4월 4일 임인.

1706-1800년 사이의 95년 동안 209명의 원장이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상황을 17세기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18세기 도산서원 원장의 연도별 명단

연도	이름	거주지	본관	경력
1706	李晔	예안	진성이씨	前군수
1707	權斗寅	외지 안동	안동권씨	前현감 진사
	金世鎬	외지 안동	의성김씨	前도사 문과
1708	金燁	예안	광산김씨	진사
1709	金世鎬	외지 안동	의성김씨	前도사 문과
1710	金純義	예안	광산김씨	
	李穰	예안	진성이씨	통덕랑
1711	李再昌	예안	진성이씨	진사
1712	金世鎬	외지 안동	의성김씨	前도사 문과
	李守約	예안	진성이씨	봉직랑
1713	李適意	외지 영주	경주이씨	前지평 문과
	金翰國	예안	광산김씨	
1714	金鏞	예안	광산김씨	
	權斗經	외지 안동	안동권씨	前정언 문과
1715	金昌錫	외지 안동	의성김씨	前정언 문과
1716	金重國	예안	광산김씨	
1717	金侃	외지 안동	풍산김씨	前정랑 문과
	權斗經	외지 안동	안동권씨	前정언 문과
1718	洪相民	외지 함창	부계홍씨	前주부 생원
1719	李再昌	예안	진성이씨	생원
1720	鄭重元	외지 안음	초계정씨	前참봉 진사
	權斗紀	외지 안동	안동권씨	前지평 문과

1721	柳敬時	외지 -	전주유씨	前도사 문과
	李守約	예안	진성이씨	봉직랑
1722	李再昌	예안	진성이씨	생원
	羅鶴川	외지 영주	수성나씨	前부사 문과
	安鍊石	외지 안동	순흥안씨	前현감 문과
	李守謙	예안	진성이씨	前봉사
	金倣	외지 영주	풍산김씨	前도사 문과
1723	李守約	예안	진성이씨	봉직랑
1724	李集	예안	진성이씨	前현감
1725	李淮	예안	진성이씨	前찰방
1726	李浹	예안	진성이씨	前참봉
1727	李守謙	예안	진성이씨	前도사
1728	李集	예안	진성이씨	前현감
	成世斑	예안 안동	창녕성씨	
	李栽	외지 안동	재령이씨	前주부
1730	李文標	예안	진성이씨	前현감
	成世項	예안	창녕성씨	前현감
1731	張后相	외지 영주	인동장씨	前군수 문과
1732	柳聖和	외지 안동	풍산류씨	前현감
	金岱	예안	광산김씨	통덕랑
1733	權相一	외지 상주	안동권씨	前장령 문과
1734	金華國	예안	광산김씨	통덕랑
1735	趙德鄰	외지 영해	한양조씨	前승지 문과
	李守謙	예안	진성이씨	前현감
1736	柳敬時	외지 -	전주유씨	前부사 문과
	柳聖和	외지 안동	풍산류씨	前현감
	李守謙	예안	진성이씨	前현감
1737	李守謙	예안	진성이씨	前현감
1738	李世震	예안	진성이씨	주서
	柳升鉉	외지 안동	전주유씨	前부사 문과

1739	成世項	예안	창녕성씨	前현감
	李集	예안	진성이씨	前현감
1740	金衡國	예안	광산김씨	생원
	李敏政	예안	진성이씨	통덕랑
1741	朴成玉	외지 예천	함양박씨	前도사 문과
	李渠	예안	진성이씨	
1742	金衡國	예안	광산김씨	생원
	權相一	외지 상주	안동권씨	前장령 문과
1743	柳升鉉	외지 안동	전주유씨	前부사 문과
1744	李守淵	예안	진성이씨	前교관
	宋儒式	외지 영주	야로송씨	前현감 문과
1745	李光庭	외지 안동	원주이씨	前봉사 진사
	李山斗	외지 안동	전의이씨	前현감 문과
1746	成世項	예안	창녕성씨	前현감
1747	李世師	예안	진성이씨	前정언 문과
	柳觀鉉	외지 안동	전주유씨	前감찰 문과
	李渠	예안	진성이씨	
1748	孫以雄	외지 순흥	경주손씨	前정랑 문과
	李世觀	예안	진성이씨	
	李見龍	예안	진성이씨	진사
1749	李時沆	외지 안동	고성이씨	前도사 문과
	李山斗	외지 안동	전의이씨	前현감 문과
	金東望	예안	광산김씨	
1750	鄭玉	외지 영주	청주정씨	前지평 문과
1751	金德安	예안	안동김씨	통덕랑
	李達中	외지	광주이씨	前참봉
1752	姜再恒	외지 봉화	진주강씨	前현감
	李徵兼	예안	진성이씨	
	琴后烈	예안	봉화금씨	
	李守弘	예안	진성이씨	

	柳觀鉉	외지 안동	전주유씨	前감찰 문과
1753	金智元	예안	광산김씨	통덕랑
	李世觀	예안	진성이씨	
1754	柳聖曾	외지 -	풍산류씨	前참봉
	李世泰	예안	진성이씨	前지평 문과
1755	朴弘僂	외지 영주	반남박씨	前사간 문과
	李守恒	예안	진성이씨	前감역
	金墜	외지 영주	예안김씨	前좌랑 문과
1756	李世恒	예안	진성이씨	前현감
	金智元	예안	광산김씨	통덕랑
	柳正源	예안	전주유씨	前교리 문과
	李萬容	외지 안동	연안이씨	前현감 생원
1757	李見龍	예안	진성이씨	진사
	金紘	예안	광산김씨	前참봉
1758	李世師	예안	진성이씨	前수찬 문과
	李重光	외지 -	진성이씨	前참봉
	李萬容	외지 안동	연안이씨	前현감 생원
1759	李龜範	예안	진성이씨	
1760	李見龍	예안	진성이씨	진사
	李象靖	외지 안동	한산이씨	前현감 문과
	金道元	예안	광산김씨	통덕랑
1761	李萬容	외지 안동	연안이씨	前현감 생원
	權墉	외지 예천	예천권씨	前직장 생원
	李守勛	예안	진성이씨	
	金紘	예안	광산김씨	前참봉
1762	李龜範	예안	진성이씨	통덕랑
	金宅東	외지 선산	의성김씨	前참봉 생원
	金埜	-	-	前좌랑
1763	李世復	예안	진성이씨	
	柳雲	외지 ?	풍산류씨	前도사

	權相龍	외지 안동	안동권씨	前장령 문과
	金景澈	외지 안동	의성김씨	前현감 생원
1764	李世澤	예안	진성이씨	前대간 문과
1765	姜杭	외지 상주	진주강씨	前도사 문과
	金圭錫	예안	안동김씨	
1766	金宅東	외지 선산	의성김씨	前참봉 생원
	金墜	외지 영주	예안김씨	前현감 문과
	李守元	예안	진성이씨	
	金埜			前지평
1767	李守貞	예안	진성이씨	前봉사
	李忠國	예안	진성이씨	前군수 문과
	金若龍	예안	광산김씨	생원
	金瑞一	-	-	前교관
1768	李龜範	예안	진성이씨	통덕랑
	朴趾慶	외지 예천	함양박씨	정자 문과
	李世聞	예안	진성이씨	前도사 진사
1769	李禧	외지 -	여주이씨	前좌랑
	金重崙	예안	광산김씨	
1770	金埜	-	-	前지평
	姜潤	외지 봉화	진주강씨	前교리 문과
	李世輔	예안	진성이씨	통덕랑
1771	金績	예안	광산김씨	
1772	李守恬	예안	진성이씨	
	高裕	외지 상주	개성고씨	前장령 문과
	李級	예안	진성이씨	前지평 문과
1773	金東遠	예안	광산김씨	
	金翼東	외지 안동	의성김씨	
1774	金墜	외지 영주	예안김씨	前현감 문과
	姜潤	외지 봉화	진주강씨	前승지 문과
	金翼東	외지	의성김씨	

1775	李顯靖	외지 안동	한산이씨	前정언 문과
	李守貞	예안	진성이씨	前현감
1776	李龜應	예안	진성이씨	前군수
1777	李世述	예안	진성이씨	前현감
	李世勉	예안	진성이씨	
	朴孫慶	외지 예천	함양박씨	前참봉
1778	李世源	예안	진성이씨	
	金夢華	외지 선산	선산김씨	前정언 문과
1779	姜瀟	외지 안동	진주강씨	前참봉 생원
	李顯靖	외지 안동	한산이씨	前정언 문과
	李世述	예안	진성이씨	前현감
	金墩	예안	광산김씨	
	朴孫慶	외지 예천	함양박씨	前참봉
1780	金玄奭	외지 -	청도김씨	前도사 문과
1781	金墩	예안	광산김씨	
	李龜應	예안	진성이씨	前군수
	鄭錫台	외지 -	동래정씨	前전적 문과
	李紳	예안	진성이씨	
1782	趙普陽	외지 안동	한양조씨	前좌랑 문과
	李世聞	예안	진성이씨	前현감 진사
1783	李龜元	예안	진성이씨	통덕랑
1784	李光靖	외지 안동	한산이씨	前참봉
	金紹	예안	광산김씨	
1785	琴錫泰	예안	봉화금씨	
	李世翊	예안	진성이씨	
	李光培	외지 -	경주이씨	前좌랑
	李龜星	예안	진성이씨	통덕랑
1786	李堉	외지 안동	한산이씨	前별검 문과
	李世鐸	예안	진성이씨	前현감 생원
	金培	예안	광산김씨	

1787	李世翁	예안	진성이씨	
	李世勳	예안	진성이씨	
1788	李憲裕	예안	진성이씨	前군수
	李景淳	예안	진성이씨	
	金台翼	예안	광산김씨	생원
1789	成彦楫	외지 -	창녕성씨	前현감 문과
	李級	예안	진성이씨	前집의 문과
1790	金翰東	외지 안동	의성김씨	前지평 문과
	金紱	예안	광산김씨	생원
1791	金台翼	예안	광산김씨	생원
1792	鄭宗魯	외지 상주	진양정씨	前도사 유일
	李綸	예안	진성이씨	
1793	李世伯	예안	진성이씨	
	金熙成	외지 안동	의성김씨	前주부 문과
	李龜錫	예안	진성이씨	前현감
1794	李龜雲	예안	진성이씨	前교리 문과
	金若鍊	외지 영주	예안김씨	前지평 문과
	李龜書	예안	진성이씨	前참봉
1795	李鎮祐	예안	진성이씨	前참봉
	李龜福	예안	진성이씨	
1796	金重玆	예안	광산김씨	
	李世胤	예안	진성이씨	前현감 생원
	金埜	외지 예천	의성김씨	前지평 문과
	李龜蒙	예안	진성이씨	
	李龜東	예안	진성이씨	
1797	李龜報	예안	진성이씨	
	柳澹	외지 안동	풍산류씨	前현령
	柳範休	예안	전주유씨	前군수 생원
1798	李世習	예안	진성이씨	
	申完	외지 -	평산신씨	前지평 문과

	蔡濟恭	외지 홍양	평강채씨	영부사 문과
	琴壽錫	예안	봉화금씨	
	權文度	외지 안동	안동권씨	前정언 문과
1799	李龜錫	예안	진성이씨	前현감
	李鎮東	예안	진성이씨	前감역
	李龜洛	예안	진성이씨	
1800	金宗儒	예안	광산김씨	

원장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해인 1729년 한 해를 제외하면 정확 하계는 94년간인 1,128개월 동안 209명의 원장이 재직한 셈이다. 원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5.4개월이다. 이는 17세기의 평균 2년 남짓이었던 재임기간과 비교하면 굉장히 줄어든 것이다. 한 명당 반년 정도 재직한 셈이니, 춘추 향사 한번을 책임지는 임기였다고 할 수 있겠다.

재직 원장 209명은 중임의 경우도 포함된 수치이다. 중임이나 연임의 경우가 50건 정도 되었는데, 17세기에 비해서는 줄어든 셈이다. 이 경우를 제하고 보면 18세기에 도산서원의 원장으로 재임한 인사의 총수는 159명이다. 단순히 17세기와 비교하면 원장의 수는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우호세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159명 중 예안 거주자가 90명으로 56.6%, 외지 거주자가 66명으로 41.5%, 미상 3명이었다. 외지 거주자의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총 66명 중 안동이 가장 많아서 28명, 순흥을 포함한 영주 10명, 예천 5명, 상주 4명, 봉화와 선산이 각각 2명으로 순이었다. 미상은 11명이다. 예안 출신의 독점 구조가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만큼 외지로부터 초빙된 원장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외지 중에서는 특히 안동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경상도 북부 지역의 여러 군현에 걸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씨별 분포는 지역보다도 더 다채로웠다. 159명 중 진성이씨가 60명으로 37.7%, 광산김씨가 23명으로 14.5%, 봉화김씨가 3명으로 1.9%였다. 17세기와 비교할 때 진성이씨와 광산김씨가 역시 견재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역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봉화김씨는 급속히 퇴진한 모습이다. 세 성씨의 합계는 86명으로 전체의 54.1%를 차지하였다. 17세기의 81.6%와 비교할 때 세 성씨 독점 구조도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공백을 다른 성씨들이 메웠다. 의성김씨 8명, 안동권씨 6명, 전주유씨 5명, 풍산류씨와 한산이씨가 각각 4명, 진주강씨·창녕성씨·함양박씨가 각 3명, 경주이씨·안동김씨·예안김씨·풍산김씨·한양조씨 각 2명 순이었다. 그 외 1명을 배출한 성씨도 대단히 많았는데, 개성고씨·경주손씨·고성이씨·동래정씨·반남박씨·부계홍씨·선산김씨·수성나씨·순흥안씨·야로송씨·여주이씨·연안이씨·예천권씨·원주이씨·인동장씨·재령이씨·전의이씨·진양정씨·청도김씨·청주정씨·초계정씨·평강채씨·평산신씨 등 23개 성씨였다. 미상은 2명이다.

18세기의 총 159명의 원장은 무려 39개 성씨에서 배출되었다. 이는 17세기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다. 예안을 넘어서서 경상도 북부지역의 명망가를 도산서원 원장으로 초빙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습은 18세기 원장의 경력을 살펴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총 159명 중 관료 출신이 가장 많아서 98명으로 61.6%를 차지하였다. 17세기의 39.5%에 비해 22% 정도 더 늘어난 비율로서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수치에는 현직 관료도 몇 명 포함되어 있는 수치이지만 그 수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전직 관료로 파악하여도 대세에 큰 지장이 없다. 전직 관료 중에서 당상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원장은 영부사인 체제공과 승지를 역임한 조덕린·강윤 정도이고, 나머지 원장들은 당

하관 이하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98명 중 절반인 49명이 문과 출신이었다. 상대적으로 유학은 43명으로 27%를 차지하여 17세기의 13명 34.2%에 비해서 비율이 조금 줄어든 추세였다. 한편 생원·진사의 직위만을 가진 원장은 7명에 그쳤으며, 통덕랑 등 품계만 가진 원장도 11명이었다.

## V. 19세기 원장 선임의 고층과 변화

19세기 조선사회는 소수의 세도가문에 의해 정치가 농단되던 세도정치였다. 대다수의 사족층은 정치에서 소외되는 가운데 영남 남인의 앞날도 어둡기만 한 시기였다. 신분제의 틀이 흔들리면서 기존의 향촌지배 세력은 여러 방향에서의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그 갈등은 곳곳에서 신향과 구향 간의 향전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또한 기층민들의 저항도 서서히 강도를 더해가던 시기였다. 거기에 사족층 내부의 갈등까지 겹친다면 그야말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 전개될 것이었다. 거기에다가 18세기 후반 이래 난립되기 시작한 소위 문중서원들이 19세기에다 경쟁적으로 설립되었다. 각기 문중세력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원에 몰두하면서 한정된 힘과 관심이 분산되었으며, 서원의 질적 하락과 함께 각종 폐단을 야기함으로써 큰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결국 19세기 중엽 고종대에 흥선대원군이 주도하는 일련의 대대적인 서원 개혁으로 귀결되었다.

도산서원 주변의 지역 사회나 도산서원도 그러한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을 수는 없었다. 설령 다른 지역보다는 사정이 조금 낫다고 하더라도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다. 이 시기가 되면 구향 간의 갈등, 구향과 신향과의 향전이 도산서원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1825년 김부필의 '문순' 시호 하사를 둘러싸고 일어난 광산김씨와 진성이씨의 갈등이 도산서원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현보와 퇴계 사이의 학문적 전수 관계 주장으로 인해 영천이씨들이 도산서원 儒案에서 삭제되는 갈등도 있었다.<sup>21)</sup> 병호시비로 인한 사족들의 분열도 도산서원 운영에 일정한 지장과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1884년에는 도산서원의 원임직의 疏通을 둘러싸고 적서 간에 심각한 향전이 전개된 바 있었다.<sup>22)</sup> 또한 1901년의 사례이지만 도산서원에 모셔진 퇴계선생의 위판이 도난당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sup>23)</sup>

향사자 本孫의 과도한 서원 운영 간여와 방만한 서원 재산의 운영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도산서원도 시대적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도산서원의 정묘년 「완의」는 그 같은 사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sup>24)</sup> 이 완의는 도산서원의 재정이 날로 악화되어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몇 년을 못가서 향사를 지내기 어려울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작성된 것으로 10개 조항에 달하는 재산 관리 지침을 새롭게 정하고 있다. 서원 보유 토지의 춘추 수세시에 원장이 직접 검사할 것을 새롭게 마련하였고, 서원 보유 토지를 본손이 경작하는 것은 모두 서원 소속 노비에게 맡겨 경작케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리고 본손이라고 하더라도 院案에 없는 사람은 새해 인사를 제외하고는 서원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어 넣었다. 이를 통해 당시 도산서원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절박

21)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327~328쪽.

22) 이수환, 「도산서원 원임직 소통을 둘러싼 적서간의 향전」, 『민족문화논총』12, 1991.

23) 『고종실록』41, 38년 12월 31일(양력).

24) 「完議」(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정묘년(1807년 또는 1867년 추정).

한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19세기 원장 분석의 대상 시기는 1801-1895년이다. 원임안에 의하면 1896년부터 1930년까지는 원임 명단은 수록하고 있지만, 원임의 직함은 기재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상유사로 짐작은 되지만 확실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1931년부터는 다시 직함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수록하고 있다. 이에 분석의 하한 시기를 1895년으로 하였다. 자연스럽게 100년 단위로 구획이 되어 앞 시기와의 비교에도 별 무리가 없게 되었다.

1801-1895년 95년간 총 217명의 원장이 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상황을 18세기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19세기 도산서원 원장의 연도별 명단

연도	이름	거주지	본관	경력
1801	李世益	예안	진성이씨	
	朴漢東	외지 예천	함양박씨	前참봉
	李學淳	예안	진성이씨	
1802	李龜報	예안	진성이씨	
1803	金大翼	예안	광산김씨	생원
	李禎國	외지 안동	예안이씨	前교관 생원
	琴疇錫	예안	봉화금씨	
	金成玉			
1804	李龜玄	예안	진성이씨	
1805	鄭來成	외지 안동	청주정씨	前도사 문과
	李宗淳	예안	진성이씨	
1806	李龜容	예안	진성이씨	
	柳相祚	외지 안동	풍산류씨	前승지 문과
1807	李師觀	예안	진성이씨	
	金是瓚	예안	광산김씨	前직장

	琴宗潤	예안	봉화금씨	
	李瑒	외지 안동	한산이씨	前참봉
1808	金瑩	예안	광산김씨	
	李龜洪	예안	진성이씨	
1809	李周楨	외지 안동	고성이씨	前좌랑 문과
	金漢儒	예안	광산김씨	
1810	李濟翁	외지 예천	진성이씨	
	李龜老	예안	진성이씨	
	鄭烈	외지		行현감
1811	李鎭慶	예안	진성이씨	
	李仁行	외지 영주	진성이씨	前현감
1812	金泊			
	金宗壽	외지 안동	의성김씨	前현감 생원
1813	丁若琇	외지 영천	나주정씨	前전직 문과
	李鍾淳	예안	진성이씨	
1814	李龜裕	예안	진성이씨	
1815	朴時源	외지 영주	반남박씨	前지평 문과
	李秉運	외지 안동	한산이씨	前현감
	李野淳	예안	진성이씨	前참봉
1816	李灝淳	예안	진성이씨	前현감
1817	金熙周	외지 안동	의성김씨	前참판 문과
1818	李泰淳	예안	진성이씨	前응교 문과
	韓致應	외지 한성	청주한씨	行유수 문과
1819	李家淳	예안	진성이씨	정자 문과
1820	金震儒	예안	광산김씨	
1821	鄭來成	외지 안동	청주정씨	前지평 문과
	李根淳	예안	진성이씨	
1822	李彙瑾	예안	진성이씨	
1823	柳尋春	외지 상주	풍산류씨	前현령 생원
	金匡鍊	외지 영주	예안김씨	

	李宜淳	예안	진성이씨	
	柳致睦	외지 안동	풍산류씨	前사서 문과
	琴象濩	외지 봉화	봉화금씨	
	李龜孫	예안	진성이씨	
1824	鄭必奎	외지 용궁	청주정씨	前참봉
	李龜星	예안	진성이씨	前군수
1825	柳相祚	외지 안동	풍산류씨	풍안군 문과
	李元淳	예안	진성이씨	
1826	李彦淳	예안	진성이씨	前승지 문과
	琴象濩	외지 봉화	봉화금씨	
	李彙陽	예안	진성이씨	前참봉 진사
1827	金永範	외지 영주	예안김씨	前지평 문과
	琴汝稷	예안	봉화금씨	
	沈興鎭	외지	청송심씨	行현감
1828	李取淳	예안	진성이씨	
	李大淳	예안	진성이씨	생원
	李龜時	예안	진성이씨	
	李彙陽	예안	진성이씨	前참봉 진사
1829-30	任希浩	예안	풍천임씨	
1831	李宗泰	외지 안동	진성이씨	
	姜世綸	외지 상주	진주강씨	前승지 문과
	李時敬	예안	영천이씨	
	南日躋	외지 안동	영양남씨	
1832	柳喆祚	외지 안동	풍산류씨	前군수 생원
	李仁淳	예안	진성이씨	
1833	李程淳	예안	진성이씨	前현감 생원
	鄭僑	외지 상주	동래정씨	前필선 문과
1834	李承淳	예안	진성이씨	
	李龜恒	예안	진성이씨	
1835	李師侗	예안	진성이씨	

	李同淳	예안	진성이씨	前승지 문과
	金星鍊	예안	예안김씨	생원
	李龜煥	예안	진성이씨	
1836	李彦淳	예안	진성이씨	前승지 문과
	李保淳	예안	진성이씨	
	李家發	외지 의성	영천이씨	前참봉 생원
	李庭淳	예안	진성이씨	
1837	李龜晦	예안	진성이씨	
	柳台佐	외지 안동	풍산류씨	前참판 문과
	李巖淳	예안	진성이씨	
1838	李老淳	예안	진성이씨	진사
	李彙正	예안	진성이씨	前도사 진사
1839	李龜泳	예안	진성이씨	
1840	李師性	예안	진성이씨	
	李彙楨	예안	진성이씨	
1841	李師性	예안	진성이씨	
	李彙壽	예안	진성이씨	
1842	宋端和	외지 한성	은진송씨	行현감
	李彙寧	예안	진성이씨	前장악정
	李時養	예안	영천이씨	
1843	姜必孝	외지 봉화	진주강씨	부호군
	李彙圭	예안	진성이씨	前정언 문과
1844	李孝淳	예안	진성이씨	부사 문과
	李鉉吉	예안	재령이씨	
	李正夏	외지 예천	진성이씨	
1845	李孝淳	예안	진성이씨	前대간 문과
1846-48	李彙寧	예안	진성이씨	前장악정
1849	鄭在箕	외지 함양	하동정씨	行현감
1850	李漢膺	예안	진성이씨	前감역
	李時養	예안	영천이씨	

1851	李進淳	예안	진성이씨	
	李晩受	예안	진성이씨	
1852	金永獻			
	金重夏	외지 영주	풍산김씨	前교리 문과
1853	李龜發	예안	진성이씨	
1854	李希淳	예안	진성이씨	
1855	李彙楨	예안	진성이씨	
	李存淳	예안	진성이씨	
1856	柳道宗	외지 안동	풍산류씨	前군수 생원
	李彙炳	예안	진성이씨	
1857	李彙冕	예안	진성이씨	
1858	金樂淵	외지 영주	예안김씨	前정언 문과
	李晩受	예안	진성이씨	
1859	柳祈睦	외지 안동	풍산류씨	行현감 생원
1860	李邦淳	예안	진성이씨	
	李一相	외지 안동	진성이씨	
	李彙廷	예안	진성이씨	前군수
	李彙載	예안	진성이씨	前목사 생원
1861	李肇淳	예안	진성이씨	
1862	金鎭河	외지 영주	함창김씨	前정언 문과
1863	李彙元	예안	진성이씨	
1864	安潤蓄	외지 안동	순흥안씨	前헌납 문과
1865	李彙寅	예안	진성이씨	
	李彥溥	예안	진성이씨	前부사 생원
	李晩松	예안	진성이씨	前정언 문과
1866	李萬淳	예안	진성이씨	
1867	李彙濟	예안	진성이씨	
	李在顯	외지 예산	한산이씨	行현감
1868	李彙蘭	예안	진성이씨	
	李彙政	예안	진성이씨	前참봉

	柳厚祚	외지 상주	풍산류씨	판부사 문과
	李彙載	예안	진성이씨	前참의 생원
1870	鄭基曾	외지 용궁	동래정씨	行현감
	李彙灝	예안	진성이씨	
1871	洪在錫	외지 봉화	남양홍씨	行현감
	金鍼			
	李彙淵	예안	진성이씨	
	李基永			
1872	李晚松	예안	진성이씨	前정언 문과
	琴誠述	예안	봉화금씨	
1873	李晚建	예안	진성이씨	
	李中極	예안	진성이씨	
	李晚華	예안	진성이씨	
	李彙斗	예안	진성이씨	
	李彙益	예안	진성이씨	
1874	李耆淳	예안	진성이씨	
	李玆			
	李晚修	예안	진성이씨	
1875	李彙詩	예안	진성이씨	
	李澤永			
	李彙承	예안	진성이씨	前승지 문과
	李晚進	예안	진성이씨	
1876	李徽應	외지		行현감
	李彙潤	예안	진성이씨	
1877	李彙秘	예안	진성이씨	
	李應淳	예안	진성이씨	
1878	李晚運	예안	진성이씨	前참판
	李晚栢	예안	진성이씨	
1879	南德熙	외지	의령남씨	行현감
	李彙敬	예안	진성이씨	

1880	李晩孫	예안	진성이씨	
1881	丁集教	외지 영주	나주정씨	前정언 문과
	李晩琦	예안	진성이씨	
	李質淳	예안	진성이씨	
	琴翼明	예안	봉화금씨	
1882	李容淳	예안	진성이씨	
	李晩喬	예안	진성이씨	
	李翊相	외지 안동	진성이씨	
	李晩郁	예안	진성이씨	
1883	柳宇睦	외지 안동	풍산류씨	前도정 생원
	李中和	예안	진성이씨	
1884	李晩燁	예안	진성이씨	
	李彙高	예안	진성이씨	
1885	李晩實	예안	진성이씨	
1886	李彙秉	예안	진성이씨	前참의 문과
	李晩逸	예안	진성이씨	前도사
	李長浩	예안	진성이씨	
1887	李晩寅	외지 안동	진성이씨	前감역
	李晩徹	예안	진성이씨	
	李凝淳	예안	진성이씨	
	李晩耆	예안	진성이씨	前승지 문과
1888	李晩衡	예안	진성이씨	
	李晩迪	예안	진성이씨	
	李晩協	예안	진성이씨	
1889	李晩容	예안	진성이씨	前응교 문과
	宋萬燮	외지		行현감
1890	李晩由	예안	진성이씨	前승지 문과
	琴敬述	예안	봉화금씨	
1891	姜漢奎	외지 안동	진주강씨	前동돈영 진사
	李晩根	예안	진성이씨	

1892	李晚逸	예안	진성이씨	前도정
	李中振	예안	진성이씨	
1893	李晚璜	예안	진성이씨	
	李宅魯	예안	진성이씨	
	姜濟	외지 봉화	진주강씨	前참봉
	李彙林	예안	진성이씨	前교리 문과
	李彙商	예안	진성이씨	
	李晚昌	예안	진성이씨	
	趙元植	외지		行현감
	鄭東箕	외지 상주	진양정씨	行군수 진사
1894	李晚胤	예안	진성이씨	行현감 생원
	柳寅睦	외지 상주	풍산류씨	行현감 생원
	李中杰	예안	진성이씨	
	李晚膺	예안	진성이씨	
1895	李晚泓	예안	진성이씨	
	李晚植	예안	진성이씨	行현감
	柳道獻	외지 안동	풍산류씨	前도사
	李晚璿	예안	진성이씨	
	李晚亨	예안	진성이씨	前동중추
	李晚一	예안	진성이씨	
	金輝濬			前감역
李彙準	예안	진성이씨	호군	

분석 기간 95년 1,140개월 동안 217명의 원장이 근무하였다. 원장의 평균 재직기간은 5.3개월 정도이다. 18세기의 5.4개월과 거의 비슷한 재직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재직 기간만으로 본다면 18세기의 형태가 19세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200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7명의 재직 원장 중에는 중임한 원장 14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을 제외한 203명이 19세기 도산서원의 원장을 역임한 정확한 인원이다.

18세기의 159명보다 44명이 더 늘어난 수치이다. 먼저 203명의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예안이 가장 많아서 138명으로 68.0%, 예안이 아닌 외지 출신이 57명으로 28.1%를 차지하였다. 거주지 미상은 8명이다. 예안 출신의 비율이 18세기의 56.6%보다 약 11% 가량 더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안의 독점구조가 더 강화된 것이라기보다 예안 출신들이 맡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더 강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서원의 전반적인 위상 하락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 도산서원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외지 출신 57명 중에서는 안동 출신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주 8명, 상주 6명, 봉화 4명, 예천 3명의 순이었다. 그 외 용궁·의성·영천 등지에 한 두 사례가 보인다. 외지도 거의 예안을 중심으로 하여 경상도 북부지역의 일부 군현에 국한되었음을 볼 수 있다. 18세기보다 원장 배출 군현은 상당히 줄어든 형국이었다. 원장으로 선출될만한 자격을 갖춘 이가 일부 군현에 편중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도산서원의 위상이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게 된 상황을 알려주는 예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다음으로는 성씨별 분포이다. 203명의 원장 중 역시 진성이씨가 가장 많아 129명으로 63.5%를 차지하였다. 18세기에 진성이씨가 차지하던 비중이 37.1%였던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26% 이상 급격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거주지 분포에서 예안 집중 현상이 나타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진성이씨가 감당할 수밖에 없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산서원을 옹위하던 타성씨들의 울타리가 점차 열어졌음을 의미한다. 이 역시 도산서원 위상이 전보다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 외의 성씨로는 풍산류씨 11명, 봉화금씨 7명, 광산김씨 5명, 예안

김씨·진주강씨가 각각 4명, 한산이씨·영천이씨가 각각 3명, 의성김씨·청주정씨가 각각 2명의 순으로 나타난다. 18세기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변화가 눈에 띈다.

먼저 의성김씨가 8명에서 2명으로, 안동권씨가 6명에서 0명으로, 전주유씨가 5명에서 0명으로 급격히 줄어든 점을 들 수 있다. 안동지역의 유력 성씨가 급격히 퇴조하고 있다. 다만 풍산류씨가 4명에서 11명으로 많이 늘어난 모습이 특이한 점이다.

다음으로는 예안 지역내 광산김씨가 18세기 23명에서 5명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 5명도 1820년 이전에 분포하고 있고, 1820년에 金震儒를 끝으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원장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1825년 광산김씨 김부필의 문순공 시호 하사로 인해 광산김씨와 진성이씨 간의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짐작된다. 어쨌든 예안지역에서 도산서원 운영에 가장 유력한 협력세력이었던 광산김씨가 원장 선임에서 떨어져나간 것이다. 예안지역 내에서 진성이씨가 외로워지는 형국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빈자리의 일부는 예안현의 수령이 감당하였다. 현직 수령이 서원의 원장을 겸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원의 유지 운영에 현직 수령의 힘을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사족 자율로 운영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서원이 스스로 관의 힘에 기대어 난국을 타개하려 한 것이다. 그만큼 서원 자체의 힘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외부 환경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현직 수령의 원장 임명은 영남의 다른 서원에서는 이미 18세기 중엽부터 나타나던 현상이었다. 드디어 도산서원도 그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1810년 예안현감 鄭烈이 원장으로 임명된 이래 19세기동안 예안현감으로서 원장에 임명된 이는 총 16명에 달하였다. 19세기 후반으로 갈수

록 빈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었는데, 이는 조정의 서원 억제책 내지 철폐령과 관련이 깊었다.

1868년(고종 5)에는 우선 미사역서원에 대한 철폐가 단행되었다. 이 때 경상도에서만 505개 서원이 훼손되었으니 그 규모와 파장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sup>25)</sup> 이어 사역서원과 관련하여서도 몇 가지 주목되는 조치를 내렸다. 고을 수령이 원장을 맡는다는 것과 서원의 면세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었다. 특히 서원의 원장과 관련하여서는 “서원의 원장을 놓고 말하더라도 공경과 재상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서원의 일을 맡아보는 것은 일을 집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시 재생들이 그의 세력을 빙자할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법 제정의 근거로 들고 있었다.<sup>26)</sup> 조정의 공경과 재상으로서 서원의 원장을 맡았다는 것은 대개 집권 서인계 서원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던 형태였지만 법의 집행은 전국의 서원에 적용되는 것이었다. 이미 많은 서원에서 수령을 원장으로 삼아온 관행을 법제화한 조치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1870년(고종 7)에는 조정의 명을 어기고 서원 업무를 本孫이 주관하면서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서원은 헐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렸다.<sup>27)</sup> 이어 이듬해인 1871년(고종 8)에는 드디어 사역서원 전체에 대한 철폐령을 내렸다.<sup>28)</sup> 다만 도학에 공이 큰 문묘종사자와 충절의 상징인 인물에 대한 一人一院 원칙에 따라 47개소만 철폐를 면하게 되었다.<sup>29)</sup>

이 때 도산서원은 문묘에 배향된 퇴계를 모신 서원으로서 47개소에

25)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156~157쪽.

26) 『일성록』, 고종 5년(1868) 9월 3일 ; 『고종실록』5, 5년 9월 3일 정축.

27) 『고종실록』7, 7년 9월 10일 계유.

28) 『일성록』, 고종 8년(1871) 3월 9일.

29) 이때의 선정 기준과 현황은 다음 책을 참고하라. 윤희면, 앞의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163~165쪽.

당연히 포함되었다. 하지만 예안현감으로 하여금 도산서원 원장을 겸하게 하는 조정의 조치를 피할 수 없었다. 이제 서원의 모든 행정적인 업무와 재산 관리의 권한이 수령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수령의 통제와 지시에 따를 것을 명시한 1870년에 작성된 도산서원의 「完議」는 그 사실을 반영하는 문서였다.<sup>30)</sup> 무려 21개 조항에 달하는 제반 규정들은 수령인 원장의 서원 운영과 재산 관리에 대한 권한으로 채워져 있다. 이 문서에는 수령과 함께 전임 원장 5명과 전임 재유사 6명이 서명하면서 문서를 보증하고 있다. 전임 원장은 관품과 성을 쓰고 그 아래에 수결을 치고 있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前參議 李彙載, 前參奉 李彙政, 前掌樂 正 李彙寧 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수령은 1870년에 원장을 지낸 것으로 나오는 鄭基曾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完議」의 규정이 실제 잘 준수되었는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우선 그 이후로 예안현감이 계속 원장을 역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870년 당해년과 이듬해인 1871년, 1876년, 1879년, 1889년, 1893년, 1894년, 1895년에 한차례 정도씩 현감이 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그 외는 여전히 주변 사족들이 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현감으로서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결국 조정의 명령이 강력하게 그대로 도산서원에 투영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현장에서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융통성이 발휘되고 있었던 셈이다.

한편 19세기 원장의 경력에 대한 분석에서도 18세기와 뚜렷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18세기에는 98명 61.6%를 차지하였던 전직 관료의 비중은 19세기에는 64명 31.5%로 거의 절반 수준의 비중이 그치게 되

30) 「完議」(한국국학진흥원 소장), 경오년(1870년 추정).

었다.<sup>31)</sup> 문과 출신도 31명에 그쳐 49명에 달하였던 18세기에 비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18세기에 비해 전체적으로 서원 원장 선임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고위 관료 출신의 원장은 16명으로서 2명 정도에 그쳤던 18세기에 비해 많이 늘어난 모습이었다. 그 중 8명이 진성이씨, 4명이 풍산류씨로서 두 가문에서 전 시기보다는 고위직 관료를 많이 배출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본다. 가장 큰 차이는 유학 출신의 급증 현상이었다. 18세기의 43명 27%였던 유학 원장이 19세기에는 117명 57.6%로 두 배 이상 비율로 급증한 것이다. 유학 출신의 급증을 곧바로 원장의 질적인 저하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에 전념하여 훌륭한 업적을 성취한 사람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60%에 가까운 인물들이 유학이거나 유학과 다름없는 처지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그 전 시기에 비해 원장의 역할이나 위상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징표일 수 있다. 이는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은 문중 서원화의 전국적인 추세 속에서 도산서원도 진성이씨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 VI. 맺음말

조선후기 약 300년 동안의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도산서원의 원임안과 각종 고문서를 주 자료로 이용하고 그 외 사서와 자료를 활용하였다. 총 463명의 원장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밝힐 수 있었다.

---

31) 예안의 현직 수령 16명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산서원 원장직은 서원을 대표하면서 서원과 관련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였다. 서원을 대표하는 존재이기에 학식과 덕망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었고, 일단 선출된 이후에는 그 권위를 인정받았다. 서원의 강화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선현 봉사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가 주어졌다. 그리고 서원 건물과 도서, 토지와 노비 같은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의 최종 책임자였으며, 서원에 소속된 구성원을 신척하고 돌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후기 300년을 100년 단위로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시기 구분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100년 단위로 나눈 것이 아니라 중앙정치를 비롯한 정국의 변화와 그에 대한 도산서원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분석의 효율성까지 감안하여 나눈 것이다. 1694년의 갑술환국 이후 남인의 중앙정계에서의 소외, 1801년 이후 전개된 세도정치와 향촌 사회의 갈등, 도산서원 원장 명단 파악의 연속성 여부 등이 주된 고려의 대상이었다.

먼저 원장의 수와 재임 기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18세기에는 원장의 수가 급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17세기와 비교하면 약 3배 이상 증가한 규모였다. 19세기에도 그러한 상황은 유지 확대되었다. 원장의 수에 반비례하여 재임 기간은 짧아졌다. 17세기에 2년 남짓에 달하였던 원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18세기와 19세기에는 각각 5.4개월과 5.3개월로 짧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원장 수를 늘려서 우호세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다음은 원장의 거주지 분포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세기의 원장은 거의 모두 예안 지역 거주자였는데 18세기에는 그 비율이 56.6%로 급격히 줄었다가 19세기에는 68%로 다시 늘어난 추세를 보였다. 18세기에는 안동을 위시한 경상도 북부 여러 지역 출신

을 원장에 임명하였기 때문이다. 19세기에 예안 출신이 다시 약간 증가한 것은 예안의 독점구조가 더 강화된 것이라기보다 예안의 진성이씨 집안에서 말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었다.

원장의 성씨별 분포 비교도 의미 있는 변화의 양상을 설명해줄 수 있는 주요한 잣대였다. 17세기 원장은 예안현의 유력 성씨인 광산김씨, 진성이씨, 봉화금씨 순으로 많았으며, 세 성씨의 합이 전체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었다. 18세기 원장 구성은 진성이씨와 광산김씨의 순으로 비중이 바뀌었으며, 세 성씨의 합은 약 54%에 그쳐서 세 성씨의 독점 구조가 상당히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9세기의 경우는 진성이씨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져서 약 63.5%를 차지하였다. 진성이씨가 감당할 수밖에 없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장 자리의 일부를 예안현의 수령이 감당한 것도 19세기에 나타난 특징이었다.

도산서원 원장에 취임할 당시의 경력에 대한 분석에서도 변화의 양상을 살필 수 있었다. 17세기에는 전직 관료 출신이 가장 많아 총 38명중 15명으로 39.5%를 차지하였다. 18세기에도 총 159명의 원장 중 전직 관료 출신이 98명으로 61.6%를 차지하여 전 시기에 비해 수적으로나 비율면에서 월등히 늘어난 모습이었다. 19세기에는 전직 관료 출신의 비중이 64명 31.5%에 그쳐서 전 시기에 현격히 줄어들었다. 한편 유학의 비중은 상반되게 변화하였다. 17세기에는 13명으로 34.2%를 차지하였고, 18세기에는 43명으로 27%를 차지하여 조금 줄어든 추세였으며, 19세기에는 117명 57.6%로 전 시기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비율로 급증하였다. 이는 주변 지역의 명망가를 원장으로 영입하여 서원을 유지하려한 18세기의 상황과 전체적으로 원장 선임에 어려움이 있었던 19세기의 상황을 반영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산서원은 시대적 변화에 비교적 잘 대응하면서 운영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는데, 대응 과정의 어려움을 원장 구성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의 결과 나타난 여러 특징들은 바로 도산서원 역사의 생생한 모습인 것이다.

### 【참고문헌】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이우성 편, 『도산서원』, 한길사, 2001.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연구』, 경인문화사, 2008.  
 정만조 외,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고전적』, 성심, 2006.
- 박현순, 「16-17세기 예안현 사족사회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1~270쪽.  
 윤희면, 「고종대 서원 철폐와 양반 유림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10, 1999, 151~182쪽.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 원임 연구」, 『역사교육』54, 1993, 41~68쪽.  
 이수환, 「도산서원 원임직 소통을 둘러싼 적서간의 향전」, 『민족문화논총』12, 1991, 109~130쪽.  
 이수환, 「서원의 정치사회사적 고찰」, 『교남사학』1, 1985, 239~274쪽.  
 정만조, 「영조 14년의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서비」, 『한국학연구』1, 1982, 49~83쪽.

Abstract

##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Heads of Dosan Seowon(陶山書院) in the Late Joseon Dynasty

Woo, In-Soo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ds of Dosan Seowon, a private Confucian academy, by analyzing those who served as the head of the academy over the past three hundred years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e head represented the academy and took responsibility for all of the affairs related with the academy. As he represented the academy, he was required to be equipped with knowledge and virtue suitable for the position and was given authority once elected. This study used Woniman(院任案) and a variety of old manuscripts as main materials and other historical records and materials.

The researcher divided the three hundred years of the late Joseon era into three one-century periods, then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ds of the Dosan Seowon in each period. Through the analysis of 463 heads of the academy, the following results were acquired.

To begin with, the number of the heads of Dosan Seowon and their service durations were examined. In the 18th century, their number increased sharply, about three times that of the figure in the 17th century. This trend continued and accelerated in the 19th century. Meanwhile, the service durations of the heads shortened, forming a negative association with the number of the heads. In the 17th century, an average service duration reached two years. But the figure decreased to 5.4 and 5.3 months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respectively. This was related to the intention to increase those who were favorable to the academy by producing more of them.

Nex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detected in the head's residential district. In the 17th century, almost all heads of Dosan Seowon were the residents of Yean(禮安), but in the 18th century, the proportion of the heads from Yean dropped sharply to 56 percent. The figure, however, rose slightly to 68 percent in the 19th century. In the 18th century, those from Andong(安東) and other districts in the northern Gyeongsang region were appointed as the head of the academy. The slight increase of the heads from Yean in the 19th century reflected the reality in which one from the Jinseong Lee clan had to take the position not the enhanced dominance of those from Yean in the position.

The family names of the heads turned out to be an important yardstick of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ds of Dosan Seowon. Of the heads of the academy in the 17th century, ones from the Gwangsan Kim clan took the highest proportion, followed by ones from the Jinseong Lee clan and the Bongwha Geum clan. Those from the three influential clans in Yean-hyeon accounted for about 82 percent of the entire heads in the 17th century. In the 18th century, however, the Jinseong Lee clan produced more heads than the Gwangsan Kim clan, and the heads from the three clans accounted for about 54 percent, showing the dominance of three clans had weakened. In the 19th century, the proportion of the heads from the Jinseong Lee clan surged, recording about 64 percent. This reflected the reality in which ones from the Jinseong Lee clan had taken the position. Another characteristic that newly appeared in the 19th century is that the governor of the Yean-hyeon played part of the role of the head of the academy.

It is appraised that Dosan Seowon was well managed, responding relatively well to generational change. This study looked into the difficulty with managing the academy amid those chang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mposition of the heads.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heads found from the analysis represent the vivid history of the academy.

**Key Word**

Dosan Seowon, Head of Dosan Seowon, Composition of the Heads,  
Yean-hyeon, Jinseong Lee clan

- 논문투고일 : 2013.7.15. 심사완료일 : 2013.7.30. 게재결정일 : 2013.7.30.